

# 우리 服飾의 變遷

이화여대교수 유 희 경

高麗史 輿服志(여복지) 서문에서 보면 신라, 고려를 통한 복식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東國은 三韓으로부터 儀章服飾이 土風을 따르다가 신라 太宗에 이르러 唐儀를 請襲하니 이후의 제도가 중국에 얼마간 비길만 하게 되었다. 고려 太祖는 개국초에 일이 많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구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光宗에 이르러 비포소 백관의 공복을 정하니 이에 준비 상하의 차등과 위엄이 밝혀지고, 顯宗이 남방에 蒙塵(몽진)하고 開京이 회진됨에 文籍이 산일되고 제도가 施爲되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게 되자 毅宗朝에 平章事 崔允儀가 조종의 현장을 모으고 唐制를 雜采하여 古今禮를 상정하였다. 위로는 왕의 冕服(만복)·輿輅로부터 儀衛鹵簿(의위노부)에 미치고 아래로는 백관의 관복이 실리지 않음이 없어 一代의 제도가 갖추어졌다. 元에 복사한 이때 開剃辮髮하고 胡服을 입기 거의 100년이나 되었다. 明이 들어서자 明太祖 高皇帝가 恭愍王(공민왕)에게 단복을 사여하고 왕비 군신에게도 賜服(사복)이 있어 이로부터의 관문물이 환연히 새로히 고제로 돌아가고 빛나게 되었다.」

이 明으로부터의 請賜冠服은 이조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였으며, 중국에 滿이 들어왔을 후에도 의관은 明制를 그대로 쓰고 다만 조금씩 그 제도를 번역시켜 간 것을 본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 복식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1. 固有 복식 시대

제 1기 原始期

제 2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 때로부터 統一期·五胡 복식 영향기

### 1. 唐복식 영향기

삼국통일기부터 신라말기

#### 1. 五代·宋복식 습용기

고려초기부터 宋의 멸망기

#### 1. 蒙古복식 영향기

고려의 원 복속시대

#### 1. 明복식 영향기

明의 흥륭으로부터 임진왜란·병자호란까지

#### 1. 조선 복식 형성기

병자호란부터 甲午更張까지

#### 1. 西歌복식 영향기

갑오경장부터 현대까지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시대구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복식을 요약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고유복식 시대

인류의 복식사를 더듬어 보면 그것은 일찌기 기후를 조절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이 좀더 크게 작용하여 오늘의 복식을 이룩 하였음을 본다. 그것이 의복 재료의 발달과 더불어 계급의 형성과 함께 복식형태를 다양으로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의복의 형태와 양식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민족성 또는 시대성이라는 주관적 조건에 따라서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아래 구성된 상고시대 우리 복식의 기본 형태와 변천상을 구명해 보면, 지금의 北滿州 즉 松花江上流 일대를 근거로 했던 우리 민족은 아한대 기후에 적합한 의복이 요청되어 肢體를 완전히 감싸줄 수 있는 소매와 가랑이가 좁은 소위 窄袖形(책수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랑이가 들로나누어진 통 좁은 바지에다 저고리는 좁은 소매에 길이가 臀部(둔부)까지 내려오고 옷고름 대신에 띠를 허리에 매어서 저고리 앞을 여미게 된 直領交襟式의 것

이었던 것이다.

상고시대 이러한 北方式 우리의 의복구성은 대체로 襦(유, 저고리), 袴(바지), 여인이면 裳(치마), 冠帽, 帶, 履(신)가 첨부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대복식의 기본형은, 거대한 중국민족의 영향을 받아 복의식이 중조적을 불가피하게 만들기는 하였으나, 내내 하부층 사회에서는 고수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서 간단히 상대복식의 기본형을 알아 보면서 차츰 중국의 영향을 받아드려 변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고리**……저고리는 중국의 史書에는 흔히 衫(삼) 또는 襦로 표현되어 있는데, 三國史記 衣服新羅條에는 短衣라고 하였고, 또 梁書나 南史의 신라조에는 尉解라고 하며 尉解가 신라어의 표음이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고리란 말은 이조초 世宗 2년 元敬王后 選奠儀에 「赤古里」(적고리)라고 있어 이는 몽고어에서 온 訛音일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저고리는 고구려·백제·신라가 거의 같은 것으로, 기본형에 있어서는 남자가 서로 비슷하고 襖에 차이가 있는 듯 싶는데, 左襟이고 筒袖(통수)에다 길이가 둔부선까지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소매의 길이와 襖의 모양, 색, 복식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저고리의 기본형은 나중에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아 소매가 넓어지고 左襟이 右襟으로 변해갔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滿洲 通溝에 있는 舞蹈塚(종)벽화의 인물도의 저고리 형태를 보면 길이가 둔부까지 내려오는 책수형의 직령교입식이긴 하나 좌입으로 되어 있는데, 平壤지방에 있는 고분 벽화의 저고리는 우입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로 중국복식의 영향을 받아 우입으로 변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세기경의 고구려시대 고분인 鎧馬塚을 비롯해서 龍神塚, 雙楹塚 등에 있는 벽화인물의 의복형태는 대개가 闊袖形이고 襖도 원래는 곡서를 막기 위하여 생긴 것이 장식화되어 아름다운 무늬와 천으로 더욱 넓게 둘러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와 같이 책수에서 활수로 이행된 것은 관촬한 중국복식의 영향이며, 이것은 이미 魏志夫餘條(위지부여조)에 白布大袂袍(대매포)라는 것이 보이는 바,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적 양식의 침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저고리는 고려시대 몽고복식의 영향을 받아 겨우 유방을 가리울 정도로 짧아지는 것을 본다.

**바지**……바지는 史書에 袴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밖에 梁書나 南史의 백제조에는 禪(곤)이라는 것이 나오고, 신라조에는 柯半이라고 하여 신라어의 표음을 사용하고 있다. 바지라는 명칭은 이조초 鄭麟趾의 「把

持」에서 비롯한다고 하는 바 그것이 어떤 어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바지는 지금의 양복바지와 같이 가랑이가 좁은 窮袴였으며 부리 끝에 끈을 달아서 댔다. 이것은 남자가 공통으로 입었는데 이러한 모양의 바지는 전기 저고리와 더불어 활동적일뿐만 아니라 풍함을 방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복식형태라 할 것이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胡服이라 경시하면서도 戰國시대부터 袴褶(교습)이라 칭하여 특히 武人들의 常服으로 오랫동안 애용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비활동적인 활수형복식에 비해서 얼마나 실용적 가치가 많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바지는 大國袴라는 표현이 있듯이 관촬해지고 있는 것을 본다. 즉 전기한 감신·개마·쌍영·무용총의 여러 벽화에 나타난 대부분의 남자는 궁고를 입고 있는데 반하여, 지위가 높은 듯 한 주인공의 남자의 경우 현재의 바지와 같은 넓은 형태의 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慶州 異狀頓供養窟에 부각되어 있는 이차돈상과 斷石山(단석산) 석벽에 음각되어 있는 3인의 공양인물도에도 長袴와 長袴를 착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고구려 벽화의 귀인급의 의복과 상통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삼국의 袴의 규모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귀인계급의 大國袴에 대하여 서민계급에서는 細袴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바지를 남부공통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분 부인도에도 袴를 착용한 것이 있어 우리 민족 기본복제의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부인복으로서의 치마를 그위에 착용하는 것이 귀부인도에 나와있고, 무용총에는 밥상을 나르는 여인도 이를 착용하고 있어, 이중적 조적으로 되어 있음을 또한 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인착용이 기본복제였을 것이고, 着裳은 중국이나 남방계통을 따른 별개의 전통에서 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裏證해주는 것은 오늘날도 평안도 여인들의 치마를 입지않고 바지만 입고 출입하는 습관이다.

**치 마**……치마는 裳이라고도 하고 裙(군)이라고도 하였는데, 李如星은 그의 朝鮮服飾考에서 상은 군의 원형이고 군은 상보다 폭을 더해서 좀더 미화시킨 것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치마라고 하는 명칭은 전기 世宗實錄 元敬王后 選奠儀條에 「赤竹」(적마)라고 나오는 바, 이것은 「赤古里」(적고리)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인착상은 중국이나 남방계통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하였음은 전술하였거니와 여성에 있어서의 치마의 형태는 쌍영·무용·角抵塚 등의 여인도에 있어서와 같

이 길이가 길고 땅에 끄을 정도이며, 허리 끝까지 잔주름이 있고, 따로 裾端(군단)에는 일종의 장식연 즉 襪을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또 감신층의 여인도는 치마가 저고리 위에 입혀지고 치마자락이 지면에 깔리고 거단의 장식연이 이조의 스란치마와 비슷하여 이미 중국식 양식의 짝함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있어서도 치마의 길이에 따라 여성의 계급적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漢族의 의복은 본래 上衣下裳으로서 의와 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과 같은 모양의 의복을 남자도 일반이 통착하였기 때문에 衣裳이라면 결코 여인의 의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중국복식의 도래 후로는 남자도 귀족·관리·독서계급에 있어서는 의상연결의 옷을 입어 이것이 중국적 양식으로 계급적 우월감의 표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을 이증해 주는 것을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도 나타난바 남자의복에 있어 四頭品條에 「表裳」이 그것이라 하였다.

**두루마기**……두루마기는 袍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表衣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두루마기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저고리·치마와 더불어 그 어원을 몽고어에 두고 있는 이가 있다.

그런데 釋名에 보면 포는 내의를 털어 아래 발목까지 내려가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복에 있어서의 포를 말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상고의 포는 무릎을 조금 내려간 오늘날의 오바와 비슷한 것으로, 周書나 北史의 백제조에 나오는 衣似袍라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포는 삼한시대부터 의례용으로 입은듯 한데, 이것이 삼국시대에 와서는 하층계급에서도 입은 것을 보아 신분·계급을 불문하고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바, 이것을 李如星의 朝鮮服飾考에서의 설명을 빌리면서, 「大同郡 개마층에는 귀인인듯한 인물이 紫色大袖袍를 착용하고 있어 전기 唐書와 三國史記에 있는 紫大袍를 연상시키는 바 있으며, 輯安縣 三神塚 인물의 포도 대체로 이와 흡사한 것인데 同地 각저·무용층에는 厨婢·侍人級까지가 착용하고 있어 포의 착용이 귀인급만 한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귀인의 포는 大袖狀임에 비하여 저급자의 포는 대체로 책수상이었던 것 등이 認知된다. 그리고 포에는 腰褌를 사용치 않고 일반으로 帶를 썼으며 領은 다같이 직령교임식이고 襖은 襦에 있어서와 같이 袖口·領·襟·裾에 까지 둘러운 것이 보인다.」라고 있어, 당시 포의 형태와 더불어 포에 있어서도 중국복식의 관찰한 제식이 삼국에 귀인계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포는 나중에 중국식 圓領·直領 습용으로 이행하며 언제까지 존속하였는지는 오늘날 밝힐 수 없는 바, 애초의 우리의 두루마기는 直垂型이었으나 오늘날의 직령으로서의 두루마기는 交衽重裾型으로 변천하였던 것이다.

**관 모**……古記錄에는 幘(책)과 折風(절풍)이 최초로 보인다. 三國誌魏書·後漢書 등을 보면, 책은 「幘似而無後」라 하였고 절풍은 「形如辯(형이변)」이라 하였는데, 우리의 책은 漢魏의 책과는 형상이 좀 다른 것이고 절풍도 辯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유사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고구려적 특수관모였음을 알 수 있다.

절풍은 또 蘇骨이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삼국에 공용되어 있었던 삼각형의 관모를 말하는 것이며 新舊唐書·東夷轉高麗條에 보이는 변과 같은 형상의 것일 것이다.

그리고 冠이라는 표현도 고기록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바, 이것 역시 삼국에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鳥羽(조우)가 삼식되었다는 것을 절풍=소골의 경우와 같은 것이며, 혹은 절풍이나 소골을 관이라고 표현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笠(갓)도 있었었는데, 이것은 절풍계통의 관모가 아니고 帽屋과 稱簷을 가진 관모로서 지금의 갓과 대차없는 것으로, 이것은 이조시대 平涼子와 흡사한 것이었던가 한다.

여인용 관모에 대하여서는 舊唐書 고구려조에 부인들은 머리에 巾幪을 썼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오늘날 서북지방 부인들이 머리에 두루는 머리수건과 같은 것이었으리라 본다.

관모의 신라어의 표음은 遺子禮였었다.

**신**……우리의 상대에 있어서의 신은 그 형태상으로 보아서 대체로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靴와 履로서 화는 防浸·防寒에 적당하여 무풍적인 북방족이 이것을 많이 착용하였고, 履는 오히려 문질적인 남방족의 것인데, 이러한 두 다른 계통의 것이 오래전부터 혼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화의 실례는 梅山里 四神塚과 쌍영총의 벽화에 나타나 있는 바, 후자에 있어서는 더한층 사실감을 보여주고 있어 이조시대의 水靴子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履라는 것은 신발의 총칭으로 履로서의 독특한 형태는 없는 바, 다만 모든 短靴의 신발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가지 長靴의 화와 구별될 뿐이다. 그리하여 履는 마치 우리나라말의 신의 뜻에 해당하여 染書와 南史의 신라조에 보이는 신라어 표음인 「洗(세)」과 통한다

고도 볼 수 있다.

재료는 화는 皮製이었을 것이나, 履는 이밖에도 布帛製(포백제), 草麻製 등이 있었고, 남한의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金銅履가 있었던 바, 이것은 死人の 생전에 실용되었던 것인지 또는 死後 歛襲用으로 제조되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歛襲用으로는 지나치게 정밀한 것이 있다.

## 2. 唐복식 영향기

우리는 위에서 상고시대 우리 복식의 기본형을 살펴 보면서 이미 이때 중국식의 복식이 들어와 窄袖(좁은수)가 闊袖(활수)로, 窮袴(궁고)가 大國袴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의복제도를 그대로 본받아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은 신라 眞德女王 때 부터이다.

즉, 同王 2년 金春秋가 唐에 請兵하러 가서 唐太宗에게 그 章服의 개혁을 청하여 중화의 제에 따르고자 하며, 衣帶를 사여하고 이를 허락하므로서 가지고 돌아와 다음해 정월 「始服中朝衣冠」함으로써 비롯하였으며, 文武王 4년에는 부녀자의 복식마저 중국의 것과 같이 개혁하여 이로부터 의관이 중국의 것과 같이 되었던 것이다.

이 金春秋의 請賜冠服을 우리 나라에 있어서 후세 고려 이조를 통해서 누차에 걸친 청사관복의 시초였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위정자 계급의 중국문화에 대한 心醉 내지는 그 동화과정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다.

신라는 唐에 대한 청병이 성공하여 백제를 멸하고 있어서 고구려를 멸하여 속원의 삼국통일을 달성하였는 바, 이후로는 태평세월이 계속하며 모든 문화는 탄숙기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도덕은 차츰 해이되고 복식제도도 문란해져 상하 준비의 구별이 없이 사치에 흐

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있어 興德王은 그 9년에 服節禁領을 내린 바 있으니,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시대 복식제도의 율곽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武烈王(金春秋), 文武王 이래의 친당정책이 복식에도 영향되어, 우선 그 관모가 唐과 같이 幘頭(복두)일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半臂(반비)가 또한 중국제이고 表衣도 중국식의 활수포를 착용하였으리라함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禁으로 나타난 것은 왕에게는 허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바, 그 한 예로서 腰帶에 옥을 금하였으니, 왕에게는 옥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唐制에 의한 君王의 白玉帶를 띠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복식금제에서 20종 복식에 대하여 10계급의 착용 규정을 자세히 설정한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이것은 물론 사치를 禁壓한다는 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겠지만, 한편 계급적인 것이 두드러져 있어 그 당시 사회의 신분계급의 발달상을 짐작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신분계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복식제도에 있어서도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능히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신라의 金冠句玉(금관구옥) 기타 진기한 佩飾(패식)은 모두 이때의 사치와 더불어 생겨난 것으로 그 호화스러운 예술은 세계의 위대한 자랑거리로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 복식의 이종적 조직 밑에 하층민 계층속에 계승되어 온 우리의 고유 복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계속)

